



흙과 돌로 쌓아 잘 정돈된 마을 골목길

‘한글마을’ 조성 나주 노안면 금안리

‘호남 명촌’ 꿈꾸는 신숙주의 고향

〈훈민정음 창제 지역〉

400년간 대동계(大同契)를 이어온 나주시 노안면 금안리 일대가 한글마을로 거듭난다. 이 마을은 고려와 조선시대의 역사 유적지가 많고, 훈민정음 창제의 주역인 신숙주(1417~1475) 선생의 고향이기 때문에 이를 기리는 한글마을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마을=금안리는 조선 유학의 정통성을 잇는 서원이 3개나 있어 ‘서원동네’라고도 불린다. 마을 사람들은 마을의 향약(鄕約=자치규약)인 대동계를 400년 동안 이어오고 있다.

이 대동계는 임진왜란때 김천일(1537~1593) 장군을 도와 의병을 일으켰던 홍천경 등이 황폐해진 마을을 다시 일으켜 세우자는 뜻에서 결성했다고 한다.

신숙주 생가 복원, 공원 조성
한글창제 교육장으로 활용
서원·돌담길 등 볼거리 연계해
명품마을 복원 기대적 정비

금안리는 영암의 구림, 정읍의 태인과 더불어 조선시대 호남의 3대 명촌 중 하나로 손꼽혔다.

12개 동네로 이뤄진 금안리는 고려말 학자 설재정가신(1244~1298년)과 조선시대 대학자인 신숙주 등 걸출한 인물들을 배출했다.

마을 이름은 정가신이 원나라 황제 쿠빌라이(칭기즈칸의 손자)를 교육하고 금의환향하면서 하사 받은 금 말안장과 백마, 육대를 가져왔다고 해 금안동(金鞍洞)으로 불린다.

마을입구에는 척서정과 경렬사(전남도 지정 기념물 196호)가 자리잡고 있다. 경렬사는 경렬공 정지(1347~1391) 장군을 배향하는 사우(祠宇)이다. 또 고종영, 전상익, 고경조, 정충신, 유평, 유성익 등 7인을 더 모셔 ‘팔현사’라고도 부른다.

정지 장군은 나주 사람으로 최영, 이성계와 더불어

어 고려 말 3대 무신 중 한 사람으로 관음포 대첩을 이끌었다. 관음포 대첩은 최영의 흥산대첩, 이성계의 황산대첩, 최무선의 진포대첩과 함께 고려말 왜구를 격퇴한 4대 대첩 중 하나이다.

◇돌담길 등 볼거리 풍성=경렬사 인근에는 흙·돌로 단장된 돌담이 자리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 2009년 마을 입구에서부터 집 30채의 담을 직접 돌로 쌓았다.

돌담길을 따라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면 신숙주 선생의 생가가 있다.

신숙주는 설총의 이두 문자는 물론 중국어, 몽고어, 여진어, 일본어 등에 능통했으며 인도어, 아라비아어도 섭렵할 정도로 뛰어난 언어학자였다.

또 여진족 정벌 등 병법에도 조예가 깊었으며 명나라와 학문적 교류를 위해 삼삼문과 함께 13차례나 요동을 다녀왔다. 또 일본과 명나라를 수차례 다녀온 외교가로도 평가를 받고 있다.

◇한글마을을 조성=나주시는 신숙주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생가를 복원해 공원으로 가꾸고, 한글창제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곳 일대를 ‘한글마을’로 조성할 예정이다.

마을 주민들은 지난해 마을회관 앞에서 ‘금안 한글마을축제’를 열기도 했다. 또 보한재 학당이 지난 2001년부터 방학을 이용해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한문 및 교양강좌를 하고 있다.

노안금안 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았던 보한재학당 홍각희 원장은 “다지자체에서 한글문화 예술제 등이 펼쳐지고 있는데 훈민정음 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신숙주 선생의 생가인 금안동이 한글마을의 원조”라고 말했다.

나주시는 문화재의 보고(寶庫)인 이곳을 호남 제일의 명품마을로 복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5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신숙주 생가를 중심으로 금안리와 영평리 일대에 ‘금안 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u@



신숙주 선생의 생가



생계정



혁신도시 빛가람동 전입 주민1000번째 돌파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빛가람동 시) 전입인구가 1000명을 돌파했다.

빛가람동 주민센터(동장 김원재)는 2월 24일 공식 업무를 시작한지 110일만인 지난 13일 1000번째 전입주민을 맞아 환영행사(사진)를 가졌다.

빛가람동 전입 1000번째 주인공은 광주 서구 농성동에서 거주하다 혁신도시 LH 2단지로 가족과 함께 전입신고를 마친 이혜경(35)씨.

빛가람동 인구는 지난 2월25일 LH 4단지 아파트 첫 입주를 시작으로 5월28일부터는 LH 2단지 아파트와 점포주택 등의 입주가 시작돼 전입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3일 현재 빛가람동 인구는 371세대 1000명. 광주·전남 외의 전입자는 69세

대 158명. 광주·전남 지역의 전입은 154세대 459명으로 61.7%가 관외전입자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줄기만 했던 나주시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시 전체 인구는 지난 2011년 9만명이 무너진 뒤 3년여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말 기준 8만7754명에서 5월 말 기준 8만8999명으로 1245명이 증가했다. 지난 1960년대 중반 27만명에 달했던 나주시 인구는 2004년말 10만명이 무너졌다.

나주시 관계자는 “인구 5만명의 자족도시가 목표인 혁신도시내 공공기관이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시 인구도 급격히 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세지면 주민들 봉사로 생산한 쌀 소외계층 지원

사랑나눔쌀 생산단지 조성

나주시 세지면 주민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생산된 쌀을 지역 소외계층에 지원할 계획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나주시 세지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황명원)는 관내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사랑나눔쌀 생산단지(2300㎡)를 조성하고 최근 모내기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자치위원들은 앞으로 제조, 방제작업 등 수확시까지 직접 참여해 사랑나눔쌀

생산단지를 경작하게 된다.

황명원 위원장은 “이곳에서 생산된 쌀은 연말 독거노인 등 주변의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전달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형성에 조금이나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지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활용을 위해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노래 및 탁구교실을 매주 운영하고 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u@

나주시농기센터 ‘건강한 힐링 푸드반’ 수강생 모집

나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한 사찰(약선)음식과 장아찌를 만들어 보며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건강한 힐링 푸드반’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7월 8일부터 16일까지 4회에 걸쳐 나주시 친환경교육장에서 일반 사찰음식과 약선 음식의 이론과 실습

교육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신청자격은 나주시에 주소를 둔 희망자로, 모집인원 초과시 여성 농업인, 신규교육 신청자 위주로 선정한 계획이다. 희망자는 다음

달 3일까지 신청서를 나주시 농촌진흥과에 팩스(061-339-2836)로 신청하면 된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2015. 5월 예정
조공예정

한빛타워 분양/임대 비교할수록! 따져볼수록!

위치 가격 수익성 너이버우신!



- 1층 금용권, 약국, 커피숍, 안경점, 24시 편의점 등
- 2층 인과, 가정의학과, 미용실, 대형매일리스토링 등
- 3층 소아과 내과, 치과 등
- 4층 각종학원 등
- 5층 이비인후과, 피부비뇨기과, 성형외과 등
- 6층 보험회사, 각종사무실
- 7층
- 8층 스카이라운지, 대형휘트니스센터 등

나주혁신도시내 중심 상권 프리미엄 빌딩

한빛타워 투자포인트

- 투자의 안전성: 신탁회사(아시아신탁) 보증을 수분양자 보호
- 합리적인 분양가 실용적인 설계: 인근 상가빌딩에 비해 저렴한 분양가, 높은 층고(4.2m~5.4m)로 인한 업종의 다양화 실현, 전용률 극대화로 수분양자 이익실현(1층 66.9%, 2층~4층 71.44%)
- 뛰어난 접근성: 혁신도시 핵심상권에 위치하여 고객응답력이 우수한 프리미엄 상가, 5층에 스카이가든을 조성하여 운동, 휴식공간으로 활용

매주 투자설명회(수요일 13:00, 토요일 14:00, 분양사무실)

주식회사 오 늘 솔로몬 공인중개사 061)333-7077 010-5587-3080

시행: 한빛가람(유) 책임시공사: 건해종합건설(주) 신탁사: 아시아신탁

